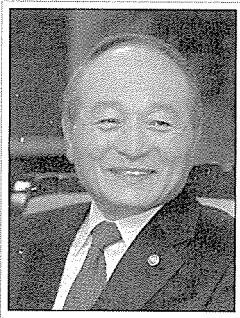


## 세계 원자력계의 르네상스를 선도하길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66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원자력 기술과 산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 명승년을 원자력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고 결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9

**존** 경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준호 회장님, 한국원자력학회 김시환 회장님,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회 이증재 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산업계, 연구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표준형원전, 고성능 신형핵연료, 신형경수로 APR1400 개발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두며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원자력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소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과학 기술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 기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하는 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과학 기술 혁신과 과학 기술 중심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과학 기술 행정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과학 기술 혁신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제2의 과학 기술 입국을 향한 탄탄한 기반으로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 기술 혁신 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원자력은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

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 규제의 강화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국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신규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가 경영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도 다섯 번째의 신규 원전 건설에 착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부흥 움직임은 다양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국내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글로벌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한데 모여 우리나라가 차세대 에너지 일등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성취와 발전이 함께 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